

#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 탄력성, 분노표출, 직무만족이 삶의 질에 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

윤성욱<sup>1\*</sup>, 오나래<sup>2</sup>

<sup>1</sup>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sup>2</sup>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강사

## Dental Hygienist's Stress Resilience, Anger Expression, Job Satisfaction Convergence Effect on Quality of Life

Sung-Uk Yoon<sup>1\*</sup>, Na-Rae Oh<sup>2</sup>

<sup>1</sup>Professor, Dept. of Dental Hygiene, Gimcheon University

<sup>2</sup>Lecturer, Dept. of Dental Hygiene, Gim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분노표출, 스트레스 탄력성, 직무만족, 삶의 질의 융합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대구, 경북 지역의 치과위생사 202명을 조사하였다. 자료는 SPSS WIN 18.0통계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분노표출은 평균 1.50이며 병원급, 직업동기유발이 있는 경우, 자부심이 없는 경우, 높은 수입, 금주가 높았다. 스트레스 탄력성은 평균 3.09이며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 높았으며 직무만족은 평균 3.24이며 자부심이 있는 경우, 금주가 높았다. 삶의 질, 분노표출, 스트레스 탄력성, 직무만족의 상관분석 결과 삶의 질과 스트레스 탄력성과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 $p < .05$ ). 스트레스 탄력성과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이다( $p < .05$ ). 총괄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분노표출을 줄이기 위해서 직무만족과 스트레스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제공과 환경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직무만족, 분노조절, 스트레스 탄력성, 삶의 질, 치과위생사, 융합

**Abstract** This study obtained significant results by analyzing 202 dental hygienists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 with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alysis using the SPSS WIN 18.0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usion relationship between anger expression, stress elasticity,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f dental hygienists. Anger expressions averaged 1.50, and was high hospital-level, job-motivated, non-self-esteemed, high income, alcohol consumption. Stress resilience was averaged 3.09, and was high when abstinence. Job satisfaction average 3.24, and was high when was pride, abstinence. Quality of life, stress 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Stress 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are positively correlated. Overall, information provision and environment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and stress resilienc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dental hygienists and reduce the expression of anger.

**Key Words** : Job Satisfaction, Anger Control, Stress Resilience, Quality of Life, Dental Hygienist, Convergence

### 1. 서론

의료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병원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 치과

의료기관의 중요한 전문 인력으로는 치과위생사가 있으며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치과위생사의 구강병 예방 및 교육업무, 진료협조, 경영관리 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2]. 치과위생사는 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구강 질환을 가진 대상자, 보호자,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Gim Cheon University 2019.

\*Corresponding Author: Sung-Uk Yoon(sunguk3794@naver.com)

Received December 15, 2020

Accepted January 20, 2021

Revised January 5, 2021

Published January 28, 2021

함께 근무하는 종사자들 간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높은 긴장감을 느끼고 있으며 업무의 과중함으로도 직무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3].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장애, 행동장애, 두통, 고혈압, 심장병 등 신체질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4], 이러한 스트레스는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분노는 어떤 사건이 규범의 범주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일어날 수 있으며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자신이 분노를 조절함으로써 분노를 진정시키려고 한다. 분노조절은 그 상태를 지각하고 내정하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이해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는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같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다[5]. 긍정적 분노조절이 실패할 경우에는 적대적, 공격적 행동, 폭언 등의 부정적 행동의 표출을 유발할 수도 있다[6]. 이렇듯 스트레스에 대한 분노는 개인에 따라 부정적인 경향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이라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분노조절이라는 기능적인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7]. 그 이유는 같은 스트레스라도 개인의 스트레스 탄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8].

분노표출은 분노에 대한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7] 분노가 조절되지 않을 경우 우울, 대인관계 문제, 정신신체증상, 자존감 저하 등 심리적, 신체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18]. 또한 적대감, 폭언, 폭행 등과 같은 분노표출과 연관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16]. 이에 따라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스 탄력성은 내·외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겨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감정을 조절하는 내적 힘이다. 즉 인지적, 사회적, 개인적 영역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융통성 있고 풍부한 적응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8]. 높은 스트레스 탄력성은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스트레스 대처 후에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낮은 스트레스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극복에 대한 능력이 하락된다고 보고되고 있다[9].

이러한 스트레스 탄력성은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분노를 조절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치과위생사의 삶의 질에도 깊은 영

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8,10,11],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과 소진과의 관한 연구[12], 타 여러 직종의 스트레스와 탄력성과의 관계[13-15], 분노에 관련한 연구[16,17] 등은 다수 수행되어 왔으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탄력성, 분노표출, 직무만족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탄력성, 분노표출, 직무만족, 삶의 질과의 관계와 스트레스 탄력성, 분노조절, 직무만족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의 직무에 관한 질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과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진행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GU-201910-HRa-19-03-P)을 받아 교비로 진행되었으며 2020년 1월에서 2월 30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의 현재 치과병,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선정 수는 G\*Power 3.1.3을 활용하여 Effect size (효과크기) 0.2,  $\alpha=0.05$ , 검정력( $1-\beta$ )=0.90에서 178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어 총 210부를 설문하여 불충분한 설문을 제외한 202부를 분석하였다.

### 2.2. 연구방법

조사내용은 치과위생사의 분노조절 정도와 스트레스 탄력성, 직무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치위생(학)과 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20명의 치과대상자를 대상자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본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나이, 학력, 결혼형태, 의료기관 종별, 입사동기 유무, 주 내원 환자 대상, 직업에 대한 자부심 정도, 수입, 음주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노표현 중 분노표출은 강[19]의 연구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총 10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표출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탄력성은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한 자아통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20] 역경 극복 능력, 회복 능력을 말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긍정적 결과'이다[10]. 본 연구는 고[13]의 연구도구를 참고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만족은 직무에 있어 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Tsui 등[21]이 사용한 분야별 직무 만족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삶의 질은 개인의 삶에 있어 만족감과 행복감의 질을 나타낸 것으로 박[22]의 연구도구를 바탕으로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무만족과 삶의 질도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삶의 질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분노조절, 스트레스 탄력성, 직무만족, 삶의 질의 항목별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검증, One-way ANOVA, 사후 검증은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삶의 질과 분노조절, 스트레스 탄력성, 직무만족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분석하였다. 검정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분노조절의 Cronbach's  $\alpha$  = .872, 스트레스 탄력성은 Cronbach's  $\alpha$  = .679, 직무만족 Cronbach's  $\alpha$  = .866, 삶의 질은 Cronbach's  $\alpha$  = .738 로 조사되어 수용할만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는 여성 치과위생사로서 202명이며 나이는 30세 이전 104(51.5%)명, 30세 이상 98(48.5%)명이다. 학력은 전문대가 127(63.2%)로 대졸보다 높았다. 결혼 상태는 126(63.9%)명이 미혼이며 의료기관 종별은 치과의원급이 181(89.6%)이다 본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한 입사동기가 있었는지는 29(14.4%)명으로 다소 낮았다. 본 근무지에

주로 방문하는 연령대는 모든 연령대 144(71.3%), 성인 39(19.3%)명, 노인 10(5.0), 소아 9(4.5%)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업에 대한 자부심유무는 '예'가 125(61.9%)명으로 높았다. 수입은 년 2500만원이 107(53.0%)이며 음주는 93(46.7%)명이 '예'로 나타났다.

### 3.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분노표출, 스트레스 탄력성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분노표출은 Table 2와 같다. 30세 이상이 1.54로 30세 미만 1.47보다 높았고 학력과 결혼 상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의료기관 종류는 병원급이 2.16으로, 의원급이 1.43보다 높았다( $p < .05$ ). 입사 동기는 있는 경우 1.80으로 높았다( $p < .05$ ). 주 내원 환자 대상은 모든 연령대 1.55, 성인은 1.44로 소아나 노인에게 비해 높았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없는 경우 높았다( $p < .05$ ). 수입은 2500만원 미만이 1.61로 2500만원 이상 1.39보다 높았다( $p < .05$ ). 음주는 하지 않는 경우 1.41로 하는 경우 1.06보다 높았다( $p < .05$ ).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스트레스 탄력성의 전체 평균은 3.09이며 나이는 30세 미만이 3.31로 높았다. 학력은 대학졸이 3.12로 다소 높았으며 결혼 상태는 하지 않은 경우가 높았으며 의료기관 종별은 병원급이 높았다. 입사동기는 있는 경우 3.31로 높았으며 주 내원환자 대상은 성인이 3.25로 가장 높았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있는 경우 3.15로 높았으며 수입은 2500만원 미만이 높았다. 음주는 하지 않는 경우 3.16으로 하는 경우 3.02보다 높았다( $p < .05$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zation	Division	N	%
Age	<30	104	51.5
	30≤	98	48.5
Education	College	127	63.2
	University	74	36.8
Marriage	Yes	129	63.9
	No	73	36.1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Dental Hospital	21	10.4
	Dental Clinic	181	89.6
Employee Motivation	Yes	29	14.4
	No	173	85.6
Target patient	Pediatric patient	9	4.5
	Adult patients'	39	19.3
	Elderly patient	10	5.0
	All ages	144	71.3
Proud pride	Yes	125	61.9
	No	7	3.5
	Usually	70	34.7
Income	<2500	107	53.0
	2500≤	95	47.0
Drinking	Yes	93	46.7
	No	106	53.3

3.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삶의 질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평균은 3.24이며 나이는 30세 미만이 3.31로 높았으며 학력, 결혼, 의료기관 종별은 큰 차이가 없었다. 입사동기 유무는 있는 경우 3.38로 높았으며 주 내원환자는 소아인 경우 3.57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은 2.90으로 가장 낮았다. 직업 자부심은 있는 경우 3.62로 가장 높았다(p<.05). 수입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음주는 하

지 않는 경우 3.34로 높았다(p<.0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전체 평균은 3.02이며 나이는 30세 이전이 3.07로 다소 높았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3.09로 높았으며 결혼상태, 의료기관 종별은 큰 차이가 없었다. 입사동기는 있는 경우 3.10으로 높았으며, 주 내원환자 대상 연령은 큰 차이가 없었다, 직업 자부심은 있는 경우 3.04로 높았으며 수입과 음주 유무는 큰 차이가 없었다.

Table 2. Anger Management and Stress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on	Division	Anger expression Mean(S-D)	p(F)	Stress resilience Mean(S-D)	p(F)
Age	<30	1.47(.54)	.292	3.31(.56)	.170
	30≤	1.54(.49)	(1.118).	3.17(.55)	(1.897)
Education	College	1.52(.55)	.710	3.08(.51)	.636
	University	1.49(.47)	(.138)	3.12(.44)	(.225)
Marriage	Yes	1.50(.55)	.748	3.12(.79)	.342
	No	1.52(.45)	(.103)	3.05(.17)	(.906)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Dental Hospital	2.16(.69)	.000***	3.20(.80)	.285
	Dental Clinic	1.43(.44)	(44.444)	3.08(.44)	(1.150)
Employee Motivation	Yes	1.80(.47)	.001**	3.21(.44)	.181
	No	1.45(.67)	(11.574)	3.08(.49)	(1.802)
Target patient	Pediatric patient	1.20(.42)		3.04(.40)	
	Adult patients'	1.44(.54)	.079	3.25(.34)	.161
	Elderly patient	1.29(.32)	(2.300)	2.99(.20)	(1.733)
	All ages	1.55(.52)		3.06(.53)	
Proud pride	Yes	1.12(.16) <sup>b</sup>	.044*	3.15(.46)	.093
	No	1.47(.53) <sup>a</sup>	(3.183)	3.05(.44)	(2.407)
	Usually	1.60(.50) <sup>a</sup>		2.99(.53)	
Income	<2500	1.61(.58)	.003**	3.11(.53)	.533
	2500≤	1.39(.41)	(9.057)	3.07(.44)	(.391)
Drinking	Yes	1.06(.50)	.008***	3.02(.55)	.044*
	No	1.41(.51)	(7.180)	3.16(.41)	(7.180)
Total Mean(S-D)		1.50(.522)		3.09(.49)	

\*p<.05 \*\*p<.01 \*\*\*p<.001

Table 3.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on	Division	Anger expression Mean(S-D)	p(F)	Stress resilience Mean(S-D)	p(F)
Age	<30	3.31(.59)	.096	3.07(.40)	.102
	30≤	3.17(.55)	(2.805)	2.97(.42)	(2.701)
Education	College	3.21(.59)	.348	2.99(.42)	.086
	University	3.29(.55)	(.886)	3.09(.39)	(2.974)
Marriage	Yes	3.25(.61)	.855	3.04(.42)	.482
	No	3.23(.50)	(.033)	3.00(.39)	(.497)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Dental Hospital	3.00(.54)	.764	3.00(.54)	.780
	Dental Clinic	3.03(.39)	(.090)	3.03(.39)	(.078)
Employee Motivation	Yes	3.38(.59)	.158	3.10(.42)	.295
	No	3.22(.57)	(2.005)	3.01(.41)	(1.103)
Target patient	Pediatric patient	3.57(.86)		2.93(.13)	
	Adult patients'	3.30(.51)	.072	3.03(.36)	.900
	Elderly patient	2.90(.31)	(2.366)	3.07(.06)	(.194)
	All ages	3.23(.58)		3.02(.45)	
Proud pride	Yes	3.62(.54) <sup>b</sup>	.012*	3.04(.37)	.356
	No	3.30(.96) <sup>a</sup>	(4.564)	2.82(.36)	(1.038)
	Usually	3.10(.55) <sup>b</sup>		3.01(.48)	
Income	<2500	3.25(.56)	.860	3.03(.45)	.205
	2500≤	3.23(.59)	(.031)	2.98(.36)	(1.615)
Drinking	Yes	3.13(.49)	.008**	3.01(.42)	.575
	No	3.34(.62)	(7.260)	3.04(.40)	(.315)
Total Mean(SD)		3.24(.57)		3.02(.41)	

\*p<.05 \*\*p<.01 \*\*\*p<.001

### 3.4. 삶의 질, 분노표출, 스트레스 탄력성, 직무만족의 상관관계

삶의 질, 분노표출, 스트레스 탄력성, 직무만족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삶의 질과 분노조절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삶의 질과 스트레스 탄력성과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p < .05$ ). 즉

분노표출이 낮은 경우 삶의 질이 높으며 스트레스 탄력성과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스트레스 탄력성과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p < .05$ ), 스트레스 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nger Expression, Job Satisfaction, Stress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Division	Anger expression	Stress resilience	Job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033(.644)	.525***(.000)	.395***(.000)
Anger expression	1	-.064(.364)	-.002(.977)
Stress resilience		1	.395***(.000)

$p < .05$  \*\* $p < .01$  \*\*\* $p < .001$

## 4. 고찰 및 결론

치과의료기관의 주요 인력인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23]. 이로 인해 분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르겠지만 스트레스 탄력성과 같은 긍정적인 작용으로 조절될 수 있다[24]. 이러한 스트레스에 따른 분노와 스트레스 탄력성은 하루 8시간 이상 직무활동을 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25].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탄력성, 분노표출, 직무만족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직무의 질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분노표출은 의료기관 종별, 직업에 대한 동기유발유무, 자부심 유무, 수입, 음주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p < .05$ ). 이 외[26]는 치과병원급이 의원급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병원급이 분노표출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에 대한 동기유발은 동기유발이 없는 경우 분노표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있는 경우 분노표출이 높게 나타났다. 동기유발이 높은 사람은 자신들의 요구, 결핍사항 열망을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높아 자신들의 노력과 열정을 쏟게 된다. 이는 동기유발이 높은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열정이 있을 것이며 분노가 일어난 경우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역기능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자부심 정도에 대한 분노표출은 자부심이 있는 경우 분노표출이 낮게 나타났다. 자부심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에 대해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한다. 콧[27]은 영아가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인 자부심에 손상을 받으면 분노감이 표출되고 긍정적 자아인식의 욕구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차와 서[7]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분노표출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자부심과 자아존중감은 영어로 self-worth로 같은 의미이다. 즉 자부심이 높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부정적인 행동이 낮을 것으로 해석되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치과위생사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수입에 따른 분노표출은 수입이 낮은 경우 높았다. 차와 서[7]는 부모님의 수입이 높을수록 분노표출이 낮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김 외[28]는 수입이 높은 경우 직무스트레스는 낮고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수입이 낮아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음주는 음주를 하는 경우 분노표출이 낮았다. 하[29]와 황과 염[30]은 스트레스와 음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음주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되며 음주를 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낮아져 분노표출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심도 깊게 더욱 연구가 더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스트레스 탄력성은 음주에서 음주를 하지 않는 유의하게 높았다. 김과 황[31]은 음주를 하는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스트레스가 있는 시 다시 이전의 자

아-통제 수준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능력을 자아탄력성이라고 하며[31]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겨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인 스트레스 탄력성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는 자부심과 음주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자부심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직무 만족이 높았다. 김 외[32]는 자부심은 자아존중감의 의미이며 차와 서[7]는 자신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자부심과 직무만족도도 양의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자부심이 있는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음주는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 직무만족이 높았다. 권과 이[33]는 음주를 하는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직무만족이 낮기 때문에 음주는 직무만족을 낮추는 요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삶의 질은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낸 결과를 얻었다. 삶의 질, 분노표출, 스트레스 탄력성, 직무만족의 상관분석 결과 삶의 질과 분노조절은 음의 상관관계, 삶의 질과 스트레스 탄력성과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로( $p < .05$ ) 분노표출이 낮고 스트레스 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의미이다. 스트레스 탄력성과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로( $p < .05$ ), 높은 스트레스 탄력성은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홍과 김[8]은 스트레스와 회복 탄력성은 음의 상관관계라고 보고하였다. 즉 직무를 하면서는 누구나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와 분노표출을 줄일 수 있는 스트레스 탄력성과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제공과 환경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선행연구결과 치과위생사는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분노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있다[34,35].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탄력성, 분노노출, 직무만족과 삶의 질을 관계를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직무에 관한 질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과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고, 향후 치과위생사의 분노조절능력과 분노표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 탄력성, 분노노출, 직무만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지 못한 점과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설문한 내용으로 일반화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더욱 심도 깊게 이루어져 본 연구에 대한 타당성을 재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이에 본 연구는 대구, 경북 지역 치과병,의원 202명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탄력성, 분노표출, 직무만족, 삶의 질과의 융합적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직무에 관한 질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과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유의성 있는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분노표출은 병원급이 의원급보다 높았으며, 입사 동기는 있는 경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없는 경우, 수입은 낮은 경우, 음주는 하지 않는 경우 높았다.

2.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스트레스 탄력성의 전체 평균은 3.09이며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높았다.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직무만족의 전체 평균은 3.24이며 직업 자부심은 있는 경우, 음주는 하지 않는 경우 높았다.

3. 삶의 질, 분노표출, 스트레스 탄력성, 직무만족의 상관관계 삶의 질, 분노표출, 스트레스 탄력성, 직무만족의 상관분석 결과 삶의 질과 스트레스 탄력성과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 스트레스 탄력성과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연구결과 치과위생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고려한 분노표출과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에 대한 탄력성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다각적인 방안 모색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것이다.

## REFERENCES

- [1] J. R. Chun. (2011). The influence of management's leadership style on employee's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12).

- 5550-5557.  
DOI : 10.5762/KAIS.2011.12.12.5550
- [2] S. J. Kwon & S. K. Bae. (2009). Analysis of impact factors of affective commitment in organization of dental hygienist in busan area-focused on quality of working life(QWL). *J Korea Contents Assoc*, 9(5), 156-165.  
DOI: 10.5392/JKCA.2009.9.5.156
- [3] S. H. Cho & Y. H. Kim. (2002). A study on the fatigue of hospital nurses in Gwangju and Jeonnam region. *J Korea Com Health Nur Acad Soc*, 16(2), 272-279.
- [4] K. S. han, E. S. Park, J. A. Song, K. M. Kim, J. H. Jin & H. C. Kang. (2007). Interpersonal Attachment Style, Emotional Regulation, and Symptom of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2), 198-204.
- [5] C. D. Spielberger, E. C. Reheiser, & S. J. Sydeman.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18, 207-232.  
DOI : 10.3109/01460869509087271
- [6] S. K. Woo. (2017). *After experiencing anger, emotional and behavioral effects : provocation-focused rumination, benefit-focused reappraisal, compassion-focused reappraisal*,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7] N. H. Cha & E. J. Seo,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Express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3(4), 451-459.
- [8] H. S. Hong & H. Y. Kim. (2016). Effect of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2), 221-234.  
DOI: 10.14257/AJMAHS.2016.39
- [9] B. M. Gillespie, W. Chaboyer, M. Wallis & P. Grimbeek. (2007). Resilience in the operating room: Developing and testing of a resilience model. *J Adv Nurs*, 59(4), 427-438.  
DOI : 10.1111/j.1365-2648.2007.04340.x
- [10] S. T. An & S. M. Kang. (2018). College Student's Stress and Individual Resilience :Effects of Community Resilience and Institutional Trust,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46(2), 209-238.  
DOI : 10.24301/MHSW.2018.06.46.2.209
- [11] M. O. Chae. (2019).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47(4), 229-238.  
DOI : 10.14400/JDC.2019.17.4.229
- [12] H. A. Jang & S. J. Han. (2018). Effect of role stress, resilience, and professional identity on burnout in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8(5), 683-691.  
DOI : 10.13065/jksdh.20180059
- [13] E. J. Ko. (2017).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Master's dissertation. Incheon University, Incheon.
- [14] J. K. Jeon. (2018). Study on the Couple Relationships in Military: Relationship among Military life Stress, Couple Relationship Resilience and Military Adjustment,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6(2), 47-56.  
DOI : 10.14400/JDC.2018.16.2.047
- [15] Y. S. Ann, K. M. Ryoo & K. Y. Park. (2016). The effect on ego-resilience upon service agility,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 Focusing on employees of Japanese restaurant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Korea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30(11), 253-268.  
DOI : 10.21298/IJTHR.2016.11.30.11.253
- [16] S. E. Gu & J. S. Kim. (2017).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Anger Management Group Program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55-77.  
DOI : 10.23844/kjcp.2017.02.29.1.55
- [17] M. S. Yoon & H. J. Lee. (2015).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Support between the Anger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Employees, *Korean Academy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2(1), 249-269.  
DOI: 10.14396/jhmr.2015.22.1.249
- [18] J. Y. Choi & Y. S. Lee. (2014). The Influences of Covert Narcissism, Anger Expression Styles and Empathic Ability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Association Rehabilitation Psychology*, 21(1), 77-95.
- [19] J. N. Kang. (2017). *The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ego-resilience and anger control ability on aggressio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 [20] J. H. Kon. (2006). *(A) Study on Explanatory Variables of Ego-Resilience of Children*. Master's

-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21] A. S. Tsui, T. D. Egan & C. A. O'Reilly III. (1992). Being Different: Relational Demography and Organizational Attachmen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4), 549-579.  
DOI : 10. 10.2307/2393472
- [22] J. H. Park. (2017).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work life of dental hygienist based on the culture-work-health model*. Master's dissertation. Namseoul University, Cheonan.
- [23] Y. O. Nam & Y. S. Na. (2000). Factors Affecting Dental Hygienists's Stress at Public Health Center in Chonbuk Province.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7(2), 125-149.
- [24] J. H. Kim, H. Y. Ahn, M. R. Eom & M. Y. A. Lee. (2010). study of emergency room nurses' burn-out, nursing performance, and professional identity. *Korean J Occup Health Nurs*, 19(1), 50-59.
- [25] H. J. Kim, A. H. Jaung & J. H. Kim. (2013).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for the Quality of Life Among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3), 229-239.  
DOI : 10.5392/JKCA.2013.13.03.229
- [26] Y. S. Lee, J. H. Jang, A. E. Moon. (2011).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stress on job satisfaction in oral health profession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1(5), 823-831.
- [27] S. J. Kwak. (2017). A Study of the Meaning of an Infant's Positive Self-Conscious Emotional Expression Appearing at Home. *Journal of Parent Education*, 9(3), 75-102.
- [28] B. N. Kim, H. S. Oh & Y. S. Park. (2012). A Study of Nurses' Resilience, Occupational Stress and satisfaction. *Korean J Occup Health Nurs*, 23(4), 451-459.  
DOI : 10.5807/kjohn.2011.20.1.014
- [29] J. Y. Ha. (2010). Drinking Problems,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Adult Nurs*, 22(2), 182-189.
- [30] D. H. Hwang & S. Eom. (2016).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dental hygienist working on Job stress. -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Self Estee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6), 67-74.
- [31] K. H. Kim & E. H. Hwang. (2012). The Relations among Stress,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of High School Gir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0), 4660-4558.  
DOI : 10.5762/KAIS.2012.13.10.4660
- [32] Y. A. Kim, Y. J. Park & K. E. Kyoung. (2014). Job Satisfaction among Korean Child Care Teachers : The Effects of Background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and Job Stress. *Korean J. of Child Studies*, 35(4), 1-15.  
DOI : dx.org/10.5723/KJCS.2014.35.4.1
- [33] E. J. Kwon & G. S. Lee.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ntal Technician's Working Environment and Job Stress.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0(9), 2471-2477.  
DOI: 10.5762/KAIS.2009.10.9.2471
- [34] H. H. Lee & H. S. Jin. (2020). Convergence Study of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Type of Anger Expression in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4), 79-86.
- [35] K. H. Lee & K. H. Kang. (2019). Academic and Job Stress Factors of Male Dental Hygienists: Analysis of Narrative Interview.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2), 191-197.

윤 성 옥(Sung Uk Yoon)

[정회원]



- 2003년 8월: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석사)
- 2013년 8월: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5년 3월~ 현재 :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교육, 공중구강보건
- E-Mail : sunguk3794@naver.com

오 나 래(Na-Rae Oh)

[정회원]



- 2010년 2월 :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4년 8월: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20년 3월~ 현재 :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시간강사

- 관심분야 : 치위생학, 산업보건학
- E-Mail : nalae761@gmail.com